

## 가는 나무가 있는 풍경

### 글. 신승오(페리지갤러리 디렉터)

임노식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보게 되는 환경에서 소재를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풍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초기의 작업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보아왔던 목장의 축사, 집 주변의 모래 산과 같은 자연경관, 그곳에서 자라는 들꽃과 나무, 돌 그리고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시각적으로 포착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시공간의 감각을 가감 없이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임과 동시에 심리적인 풍경으로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축적된 시간과 공간 사이를 가로지른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그 경계를 구분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장면을 어떻게 회화의 표면에 최대한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의 방식을 고수하여 단련하기보다는 다양한 회화적 표현을 시도한다. 때로는 정확한 묘사로 재현하거나, 대상을 생략하거나 지우기도 하며, 어두운 하나의 표면으로 만들어 내거나, 판화를 사용한 거칠고 우연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양하다.

또한 작업 안에서의 구성도 창으로 잘린 프레임, 클로즈업된 대상, 먼 풍경, 파편적인 이미지들의 병렬된 나열의 배치 등 여러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보면 그가 다다르고자 하는 풍경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번 글에서 아직 진행 중인 그의 행보의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에서 읽히는 것을 중심으로 그의 작업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가는> 연작을 선보인다. <가는>은 '가느다랗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느다랗다는 것일까? <가는> 연작에서 작가가 계속해서 그리고자 했던 주된 소재는 나무이다. 이 나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본 아버지가 그림의 소재인 집 주변의 장소를 오가며 본 풍경을 작가에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보았던 나무에서 시작하여 일반화된 나무, 상상하여 변형된 나무를 자신의 작업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나무는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동판화에서 개념을 가져와서 빠르게 선을 긋고 그 안을 색으로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느다란 선들로 이루어지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다른 하나는 나무를 사실적인 방식으로 그려내는데, 나뭇잎 하나 없는 앙상한 가지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철사와 같은 모습으로 언뜻 보면 나무라고 상상하기 힘든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동판화 기법을 차용한 작품부터 살펴보자. <가는>의 초기작들은 작은 크기의 연작들이며, 그가 새롭게 사용하는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한 작업이다. 투명한 미디엄이 마르기 전에 선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물감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마치 선 긋기 연습

을 하듯이 길고 짧은 선, 직선과 곡선의 선, 두껍고 가는 선 그리고 면을 그려내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여 넓은 화면에서 이전까지 실험하였던 방식을 활용하여 확장된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왜 이런 시간 제약이 있는 작업 방식을 선택했을까? 지금까지의 그의 작업은 자신이 경험하는 풍경을 그리면서, 그의 회화는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수용해 왔다. 이는 그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무엇인가가 명확해지기보다는, 그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어느 순간에 항상 자신을 감추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몸 밖에 존재했던 것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여 명확하면서도 불명확한 기억 속에서 재구성하려 한다. 하지만 그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인상이 기존의 감각을 소멸해 버리기를 반복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작가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그의 작업의 대상 사이에 어떤 명확한 관계가 드러날 것 같지만, 작가는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상황을 반복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 순간의 그 대상의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새롭게 사용하는 방식은 최대한 이러한 선택의 시간을 압축하여 서로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의 작업을 보면 작가에게 있어서 이 대상과 저 대상을 갈라놓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풍경은 그의 일부가 되고, 그는 풍경의 일부가 되는 듯하다.

여기서 <가는 22>와 <가는 23>으로 넘어가 보자. 이 두 작업은 앞에서 연구한 방법과는 다르게 그리고 있다. <가는 22>와 <가는 23>의 공통점은 이전 작업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는 22>에 나타나는 모래 산은 이전 작업인 <모래산>에서도 그린 적이 있는 소재이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공간을 비어 있는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이렇게 물에 떠 있거나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표현은 초기 작업인 <안에서 본 풍경 1>의 축사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가는 23>은 <레시피 03>의 구도와 비슷하여 인물이 빠지고 나무로 교체된 느낌을 준다. 그는 자신의 회화에 나타나는 대상의 이미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와 표현 방식과 형식에서도 자신의 작업을 차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작업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의 작업은 때로는 잊혀서 버려지는 것들이 다시 등장하는 풍경으로 혼란스럽고 엉뚱한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다.

다시 이 두 작품의 풍경으로 돌아오자. <가는 22>는 화면 중앙에 거대한 모래 산과 저 멀리 보이는 긴 구름과 사선으로 날아가는 동글동글한 구름, 순차적으로 투명해지는 돌멩이, 지워진 나무와 돌덩이가 꽃힌 가느다란 꼬챙이 같은 나무가 등장한다. 여기서 주된 장소로 나타나는 모래 산은 속이 비어 있는 듯 가벼운 모습이며, 넓은 구름과 함께 수평적인 구도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나무는 수직적이다. 하지만 가느다란 나무는 꽃힌 돌로 인해 완벽하게 수평도 아니고 비스듬히 휘어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는 다양한 리듬을 포함하는 구성이기보다는 어떤 공간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공기, 달리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나무들은 모든 것이 한자리에 위치하지만, 텅 빈 공간처럼 어설픈게 등장하는 대상들 사이의 부조화와 묘한 분위기를 감추고, 오히려 생기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가는 23>에서는 수직으로 길게 뻗은 나무와 그 나무의 한 가지에 걸쳐진 또 다른 나무 그리고 가녀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나무는 단단한 대지에 뿌리내리기보다는 용기되어 있는 불안한 곳에 놓여 있다. 이는 마치 무대의 장치 같다. 그리고 이렇게 돌출된 대지는 수평으로 놓인 나뭇가지의 그림으로 가려져 있다. 왼편에는 돌들이 수직으로 차례로 그려진다. 이렇게 그의 작업은 어떤 설명이 불가능한 풍경이다. 작가의 풍경에서의 개별의 대상은 이렇듯 작가 자신과의 우연과 운명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작가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수용하는 방식은 느슨하고 수동적이면서도 예리하고 오랫동안 끈기 있게 바라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감각을 다시 그림으로 옮기는 행위로 인해 이내 새로운 대상으로 변질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이처럼 실재하는 여러 이미지의 원래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와 새롭게 만들어지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 순수한 공기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

이번 그의 작업 <가는 22>에서처럼 작가의 시선은 저 멀리 보이는 구름이 가득한 아득히 먼 곳을 향한다. 이렇듯 기억이라는 것은 가까운 내 인식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저 멀리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덩어리는 이내 흩어져 버리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질서가 있고, 우연적인 것 같지만 계획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그의 작업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시작이 있고 어디에 끝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험의 흔적을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작업처럼 하나의 완결된 풍경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도 시작이 없고 어느 것도 끝이 없는 불안정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의 작업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연속적인 연결로 이루어지는 일순간의 것의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이는 작가에 의해 하나씩 추가되고 제거되는 일상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풍경으로 작가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 죽음, 공허, 절망, 기쁨, 밝음, 어두움 등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비친다. 여기서 작가는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변형된 나무의 이미지와 같이 회화적 행위를 통해 손에 잡히는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으로 변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상력이 삶이 진행되어, 점점 더 희미하고 빈곤해져 버린 감각들을 회복해 나간다. 그렇기에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이때는 그때로 그때는 다시 이때로 움직이는 풍경이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로 밀려나고, 과거는 작가에 의해 다시 현재로 되살아난다. 그렇다면 오히려 작가가 그려내고자 하지만 다르지 못하는 풍경은 현재에서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존재들로 그려진 풍경은 아닐까? 결국, 자신이 경험하는 풍경에서 얻어진 내면에 잔존하고 있는 이미지의 흔적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의 작업은 하나의 풍경화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그 자체로 새롭게 존재하기 위한 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작가로서 그에게 서서히 스며들어간 회화의 목표 지점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는 대상은 그것이 그려나가는 순간 이내 사라지고, 다른 무엇인가가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가

풍경을 그리는 행위는 어떤 본질보다는 존재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rtist: Lim No Sik**

**Critic: Shin Seung Oh**

## **A landscape with thin trees**

**Shin Seung Oh (Perigee Gallery Director)**

Lim No Sik is working on transferring it to the landscape that he observes and experiences the objects in the environment that he sees where he stays. From the early work, a ranch's barn which have been familiar since childhood, natural scenery like sand mound around the house, wild flowers and trees growing there, stones to the studio where he uses, the artist intended to contain the various senses of time and space that he felt while visually capturing. This is a landscape that actually exist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psychological landscape. And it crosses between the time and space accumulated in his past experiences. Therefore, he is contemplating how to capture accurately complex and complicated scenes on the surface of the painting, which is hard to distinguish the boundaries because these various elements are mixed together. Therefore, he tries various pictorial expressions rather than training by sticking to one method. Sometimes, it is diverse, such as representing with accurate depiction, omitting or erasing objects, creating one dark surface, or using rough and accidental expression applying prints.

In addition to that, the composition in the work is also being developed in several ways, such as a window-cut frame, a close-up object, a distant landscape, and a parallel disposition of fragmented images etc. Looking at this work process, I start to wonder what kind of landscape he wants to reach to. I am going to take a look at his working attitude, focusing on what is read in the work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rather than concluding his walk in progress in this article.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 presents serious of <Fine>. <Fine> means 'slender'. Then what is thin? The main subject that the artist continued to draw in the series of <Fine> is a tree. The tree was nothing but an object appearing in various stories from the process in which his father talked on

the phone to the artist about the scenery that he saw around the house after seeing the artist's drawing. But he made it the main object of his work, from a tree he saw to a generalized tree and a tree that he imagined and transformed. The tree is drawn in three ways. One is to use a method of taking concepts from copper engraving, drawing lines quickly, and filling them with colors. This creates a landscape consisting of thin lines. Another is to depict the tree in realistic way, which appears as bare branches leafless. Last one appears as if it hard to imagine as the tree at first glance because it looks like a thin wire. First of all, let's take a look at the work that borrows the copper engraving technique. The early works of <Fine> are small-sized series and these are works to be experimented in various ways in order to study techniques he uses newly. It is a method to draw first with a line and to fill it with colors before the transparent medium is dry. Long and short lines, straight and curved lines, thick and thin lines, sides were drawn as if practicing drawing lines. In the works afterwards, the size of screen is enlarged and the expanded works presented applying the previous experimental method on a wide screen. Why did he choose this time-limited way of working? He has painted the landscape that he has experienced in his work and his work has been experiencing and accepting the changes. This is because the object he wants to draw always hides itself at some point rather than making something clearer as he draws.

In other words, the artist accepts what existed outside into inside body through the act of drawing. And then he tries to reconstruct it in a clear and unclear memory. However, a new impression that naturally occurs dissipates the existing sense repeatedly. Therefore, the artist is in a situation where he has to choose something every moment. In the process of making this choice, a clear relationship among the objects of his work is likely to be revealed. But the artist repeats the unsatisfied situation. Nevertheless, he seems to always want to remember the image of the object at that very moment. Therefore, the method he uses newly can be seen as an act to narrow the gap between each other by compressing the time of this choice as much as possible. Looking at his work like this, the thing that separates this object from that object seems to be the time, not a physical distance to the artist. This is as if the scenery of every moment when he paints becomes a part of him, and also, as if he seems to be a part of the scenery.

At this point, let's move on to <Fine 22> and <Fine 23>. These two works are drawn differently

from the method studied previously. What <Fine 22> and <Fine 23>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borrowing the method of previous work. The sand mound that appears in <Fine 22> is a subject that has been drawn in the previous work, <Sand from Somewhere Else>. And the way this is expressed makes a space feel empty and light. This expression of floating on the water or drifting in the air is similar to the appearance of barn in <View from the inside 01> which is the early work. <Fine 23>'s composition is similar to the one of <Recipe 03>. So it gives the impression like the person has been deleted and replaced with a tree. He does not only repeatedly use the image of the object appearing in his painting, but also has attitude to borrow his work in composition, expression, and format. In this way, his work continues changing and also not changing. In this way, his work is a landscape where things that are sometimes forgotten and discarded reappear. So it is a space where the confusing and outrageous energy flows.

Let's return to the landscapes of these two works. In the center of the screen of <Fine 22>, there appears a huge sand mound, long clouds seen far away, round clouds flying diagonally, stones that become transparent sequentially, erased trees, and slender skewer-like trees with a rock stuck. In here, the sand mound to appear as the main place looks light as if it is empty. And it shows a horizontal composition with a wide cloud. On the contrary, the tree is vertical. But the thin tree is not perfectly horizontal due to the stone stuck. It looks curved obliquely. This is a space where softness and sharpness coexist. And the tree appearing here seems to focus on the invisible air emitted by a certain space, in other words, the role of creating an atmosphere, rather than the composition that includes various rhythms. These trees are all located in one place but they hide the disharmony and bizarre atmosphere among objects that appear clumsy like empty spaces. And rather, they become to feel lively.

In <Fine 23>, the vertically long tree, another tree that spans one branch of that tree, and slender trees appear to be growing. This tree is placed in an unstable place which is protuberant rather than rooted in a solid land. It is like a stage device. And this protruding land is covered by a picture of branches placed horizontally. On the left side, stones are drawn vertically in turn. In this way, his work is an unexplained landscape. The individual object in the artist's landscape appears in a complex connection between coincidence and destiny with the artist himself. And the way that the

artist accepts thi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is loose, passive, but keen, and it is a sense about what he has seen and felt patiently for a long time. However, on the one hand, due to the act of transferring these senses back to pictures, they soon change into new objects sometimes. Therefore, the atmosphere flowing throughout his work is created newly, falling from the original essence of various real images. And these things gather to create something like pure air.

As in his work <Fine 22>, the artist's gaze faces a distance place to be full of clouds far away. As such, memory is also due to my close perception, but sometimes everything in the distance seems to be one lump. However, these lumps are soon scattered. They look free but appear in order. And they seem coincident but appear in planned manner. When looking at his work, I become to have a question like where the beginning is and where the end is and 'how we distinguish the traces of any experiences.' Perhaps, it seems to be a complete landscape like his work. But it must be an unstable appearance as if anything does not have a beginning and anything does not have an end. Therefore, his work process acknowledges the fact that anything we sees and experiences is not true. And through this, it makes us feel that our lives would be the sense of a moment of continuous connection that is endlessly repeated.

In this way, what he intends to draw is not just a landscape, but a space full of traces of life. This is a landscape made up of everyday objects that the artist adds one by one and removes. And it overall reflects various time and spaces such as invisible life, death, emptiness, despair, joy, and darkness that exist inside and outside of the artist. In here, like the image of the tree transformed by his imagination, through his pictorial actions, it turns out to be an imaginary space tha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fiction and reality held in his hands. In this way, he has restored senses which have become more faint and impoverished as life progressed, by imagination that made everything possible in childhood. Accordingly, what appears in his unpredictable and changeable work is the moving landscape, from this direction to that direction, from this time to that time, from that time to this time.

In fact, the present we live in is pushed back to the past continuously, and the past is revived to the present by the artist. If so, wouldn't the landscape that the artist wants to draw but cannot

reach to be the landscape drawn the beings of the upcoming future, not the things that exist as the present in the present. In the end, his work of reconstructing again the traces of images remaining on the inside, obtained from the landscape he has experienced, would be the way to exist newly as a painting itself, not completing a landscape painting. This point seems to be becoming the goal point of a painting that has gradually permeated him as an artist. If so, the object he draws disappears as soon as it is drawn and becomes something else. Therefore, his act of painting a landscape can be seen as getting used to existence itself rather than any essence.